

# 대표 간신 9인을 통해 본 권력의 맨 얼굴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

이성주 지음

“나라를 망치는 데에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다. 바로 ‘송사’에 나오는 유명한 격언이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왕을 좌지우지하며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던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왕 곁에만 간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이들 주위에도 간신은 들끓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간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와 내부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간신’이다. 간신(奸臣)이라는 단어는 불온하다. 사전적 정의는 ‘군주의 눈을 흐려 국정을 뒤에서 농간하는 간사한 신하’를 일컫는다. 격동의 역사를 간신들의 연대기라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간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왜 간신은 사라지지 않을까?”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질문을 토대로 책을 쓴 이가 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사 진풍경’, ‘왕들의 부부싸움’의 저자 이성주가 펴낸 ‘모든 권력은 간신을 원한다’는 한국사의 대표 간신 9인의 이야기다. 저자는 이들의 역사를 통해 권력과 조직의 속성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대다수의 간신은 군주에 의해 ‘발명된 존재’였다는 관점을 취한다. 다시 말해 ‘왕이 허락해야 등장하는만 들어진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리더는 내부를 단속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외부의 적을 활용했다. 물론 외부에서 찾지 못하면 내부의 적을 새로이 만들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간신은 적당히 이용하다가 쓸모가 다하면 조직의 오류를 안고 버려졌다. 이때 군주는 간신을 처단해 질서와 정의를 회복하는 명분을 삼았다.

저자가 주목한 9명은 홍국영, 김자점, 윤원형, 한명회, 김질, 이완용, 임사홍, 원균, 유자광이다. 구체적으로 계유정난을 통해 역사에 모습을 드러낸 한명회부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핵심인물인 이완용까지 간신들의 역사를 9가지 에피소드로 정리했다.

저자는 김자점에 대해 기반이 불안했던 인조가 자신을 위해 ‘짓어줄 개’로 인식했다고 본다. “문제는 이 ‘개’의 조건이었다. 충성스럽고 사나우면서도 자신에게 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바로 생각과 인망이 없으며 능력도 없고 만족을 몰라야 했다.



독립협회는 영문문을 읽고 독립문을 세웠다. 현판을 쓴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조선귀족 영주 후작 이완용이 썼다’는 증언이 나온다. <추수밭 제공>

명종 때의 윤원형은 권력을 잡은 뒤 언론사를 자신의 아래에 두었다. 권력자들은 어느 시대나 언론이라는 감시권을 묶어 두려는 속성이 있다. 우리의 현대사 또한 이를 방증한다. 그 시도가 성공했을 때 간신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홍국영과 정조는 신하와 왕 그 이상의 소통하는 관계였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권력을 쥐게 됐다. 그러나 이후 정조는 이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했다. 이는 군주가 ‘간신’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방편 가운데 하나다.

권력의 속성상 모든 리더들은 간신을 원

한다.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자에 의해 발명된 설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이 부패로 멸망했다면 간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군주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리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맡겨라” 기억해야 할 것은 간신은 간신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힘이라도 쥐어졌을 때 흔들린다면 간신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추수밭> 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부모가 된다는 것의 철학-모든 부모들과 예비부모, 자식들이 마주치는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의문들에 철학자 진 커제즈가 경험에서 비롯한 통찰을 담아 대답한다. ‘아이를 가지는 일이 왜 특별한 한지’부터 시작해 ‘산고기 끄적거리기만 할 일인가’, ‘아이를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 부모들이 가지는 18개 철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실용적 조언들을 담았다. <클> 1만6000원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우리말 강화=‘세상에 그냥 쓰이는 말은 없다’는 지론으로 우리말에 숨겨진 원리를 밝혀낸다. 국어학자 최경봉 교수의 분석으로 신조어부터 기존 어문규범까지 우리말의 생성 원리, 어원, 정착 과정을 알아보고 외래어와 순화어의 관계, 일본어에서 비롯된 표현 등을 파헤치며, 사전편찬자인 저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말 사전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한다. <산지나>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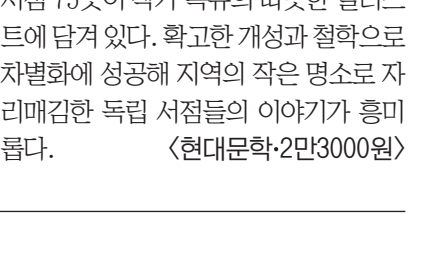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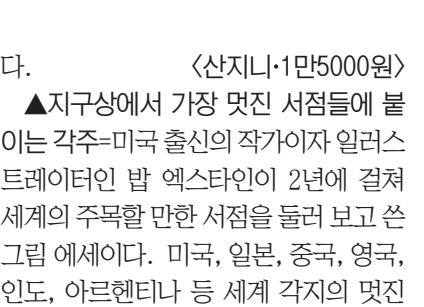
▲대학과 청년=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위원장 류승수 교수가 말하는 대학평가와 재정 악화로 위축된 대학의 부흥 방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졸업생 취업 등 대학을 위협하는 현안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현대문학> 2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와그르르 와그르르=밤마다 집 아래 으스스한 곳에 살고 있는 악어를 돌보기 위해 아이는 장화를 신고 보호모, 양동이, 나무 막대기와 자루를 들고 계단을 내려간다. 악어는 아이를 보고 입을 짝 벌리지만, 아이는 커다란 칫솔과 이쑤시개를 꺼내든다. 나오키상 수상자 네지메 쇼이치의 글과 일러스트레이터 고마쓰 신야의 그림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해내는 능력과 남을 보살피는 배려심을 풀어냈다. <달리> 1만2000원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죽=산딸기 잼을 큰 숟가락 만들어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돼지 아줌마가 열두 쌍둥이를 낳자 야기던 외투를 풀어 목도리를 짜 선물하며, 산양 할머니를 위해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죽을 끓이기로 하는 아이 두루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을 담았다. 어른에게조차 어려운 ‘나눔’을 즐기는 용기를 최숙희 작가의 글·그림으로 펴냈다. <책읽는곰> 1만3000원

▲판소리 소리판=제6회 우리교육 어린이책 작가상 기획 부문 수상작 ‘판소리 소리판’이 단행본으로 나왔다. 판소리에 대한 정혜원 작가의 애정과 체험을 담아 판소리 명창의 이야기와 이론들을 재치있게 엮었다. 판소리의 시작부터 득음, 진양조, 귀곡성, 소리판 등에 얽힌 실제 인물들의 짧은 이야기를 민은정 작가의 그림과 함께 정리했다. <우리교육> 1만3000원



##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꿈꾸며...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운 지음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다. 넓거나 근사하지 않아도, 내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맘 편히 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을 갖는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하며 교수직을 떠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은 나이 50이 넘어 교토의 미술대학을 다녔다. 4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연구도 없는 여수로 내려와 ‘바닷가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글 쓰며 살고 있다.

김정운의 신작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불안 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책의 부제 ‘슈필라움의 심리학’에 등장하는 ‘슈필라움’ (Spielraum)은 독일어에만 있는 단어다. ‘놀이’를 뜻하는 ‘Spiel’과 ‘공간’을 의미하는 ‘Raum’의 합성어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아의 주체적 공간’인데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심리적 여유’까지 담고 있는 공간이다.

“삶이란 지극히 구체적인 공간 경험들의 앙상블”이라고 정의내리는 그는 오랫동안 ‘슈필라움’을 꿈꿔왔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에 따

르면 사람들은 외로움과 공핍함을 담보로 얻어낸 ‘자연인’의 ‘슈필라움’을 부러워하고,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스님조차도 ‘깨끗한 빈방’에 대해 마음을 썼다.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바닷가 작업실’을 얻었던 그는 또 다른 시도중이다. 여수에서도 한 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에 자리한 낡은 미역창고를 매입해 작업실로 삼기로 한 것이다. 작업실 ‘미역창고 (美力創考)’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그가 말하는 슈필라움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이 구현된 곳’이다. 이런 곳이라면 보잘 것 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자기의 슈필라움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매력을 만들고 품격을 지

키며 제한된 삶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선과 마음, 불안, 열등감, 욕하기, 감정혁명, 펠랑클리, 아저씨, 자기만의 방, 저녁노을 등 24개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며 그의 다른 저서에서 만날 수 있는 시원시원한 글쓰기를 예전한다.

여수 작업실에서, 석양이 질 때 듣는 슈베르트의 가곡 ‘저녁노을’, 가을의 여수 앞바다와 어울리는 리스트의 ‘콩솔라시옹’, 이어폰으로 듣는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까지 책 속에 등장하는 음악이나 책, 그림 등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꿈꿨던 그의 작업실 겸 놀이공원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그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김준호 사진작가가 촬영한 여수의 사계절 풍광과 삶의 모습 등도 인상적이다.

책을 읽다보면 누구나 꿈꿀 것 같다. ‘불안 없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21세기북스> 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